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 시점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11. 10.(화) 21:00

한국 정부대표단, 프랑스가 개최한 'G7+ 마약 밀매 대응 항만 네트워크' 출범 회의 참석

- G7 주도 국제 항만 협력망에 합류해 마약 밀수 차단 착수
- 부산항도 참여해 세계 주요 항만들과 보안 경험 공유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외교부와 관세청, 부산항만공사가 함께 11월 9일(월)부터 10일(화)까지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개최된 'G7+ 마약 밀매 대응 항만 네트워크' 출범 회의*에 참석해 국제 마약 밀매 대응을 위한 주요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외교부·관세청 관계자 현장 참석, 부산항만공사는 화상 참여

이번 회의는 프랑스 G7 의장국 주도로 개최되었으며, G7 회원국 및 초청국인 한국과 브라질 정부·항만당국,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세계관세기구(WCO),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국제해사기구(IMO) 등이 참석했다. 회의 주제 내용으로는 ▲마약 밀매 위협 동향 및 적발 사례, ▲항만 보안 강화, ▲첨단 검색 기술 활용, ▲향후 네트워크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에 프랑스 이블린에서 개최된 G7 외교장관회의 계기 마약 밀매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논의에 참여하고, 6월에 G7 에비앙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마약 밀매 대응 공동선언'에 동참한 바 있다. 이번 출범 회의는 이러한 국제적 논의의 후속 조치로서, 우리나라가 국제 마약 밀매 대응을 위한 G7+ 협력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국제 해상 물류망을 악용한 마약 밀매가 국경을 초월한 공동의 위협임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마약류 적발 사례와 항만 및 관세 당국의 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핵심 환적 거점이자 세계 주요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을 G7+ 항만 네트워크 참여 항만*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주요국 항만과의 보안 관련 경험 및 모범사례 공유, 첨단기술 활용과 민관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부산항(한국), 마르세유·르아브르·덩케르크항(프랑스), 휴스턴항(미국), 런던 게이트웨이항(영국), 함부르크항(독일), 제노바항(이탈리아)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 마약 밀매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G7+ 항만 네트워크 등 국제 협력체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한 해상 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마약 밀매 대응을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항만당국, 민간 운영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한국은 축적된 관세행정 경험과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노력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외교부 국제경제국 다자경제기구과	책임자	과 장	박인정 02-2100-7736
		담당자	사무관	이세영 02-2100-7735
담당 부서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책임자	과 장	김승민 042-481-7820
		담당자	주무관	김민섭 042-481-7782
담당 부서	해양경찰청 형사과	책임자	과 장	안철준 032-835-2161
		담당자	경 위	김희진 032-835-2561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책임자	과 장	한지웅 051-773-5790
		담당자	사무관	김영민 051-773-5778
담당 부서	부산항만공사 국제물류지원실	책임자	과 장	설은혜 051-999-210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자유이용

참 고 출범 회의 사진



